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가구의 가공식품 소비 지출 변화와 특징

이계임, 정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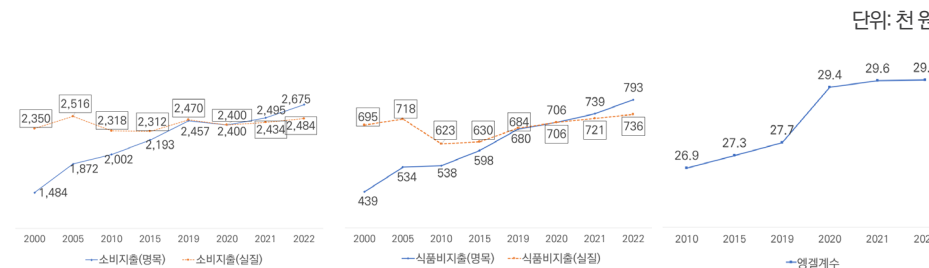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은 식품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심층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고자 가계 소득과 지출을 조사·발표해 오고 있으며, 2023년 3월 ‘2022년도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전국 약 7,200가구 대상 월평균 소득지출 조사 자료)를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를 통해 발표함.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가계동향조사의 2022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가구의 식품소비지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와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1. 2022년 가구의 소비지출, 식품비 지출 변화

-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에 전년 대비 2.3%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49만 4,854원으로 전년 대비 4.0%가 증가하여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에 따라 가구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267만 5,470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해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상회함. 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금액 기준으로 2022년 가구당 소비지출액은 248만 3,957원으로 2021년에 비해 2.0% 증가하여 2019년과 유사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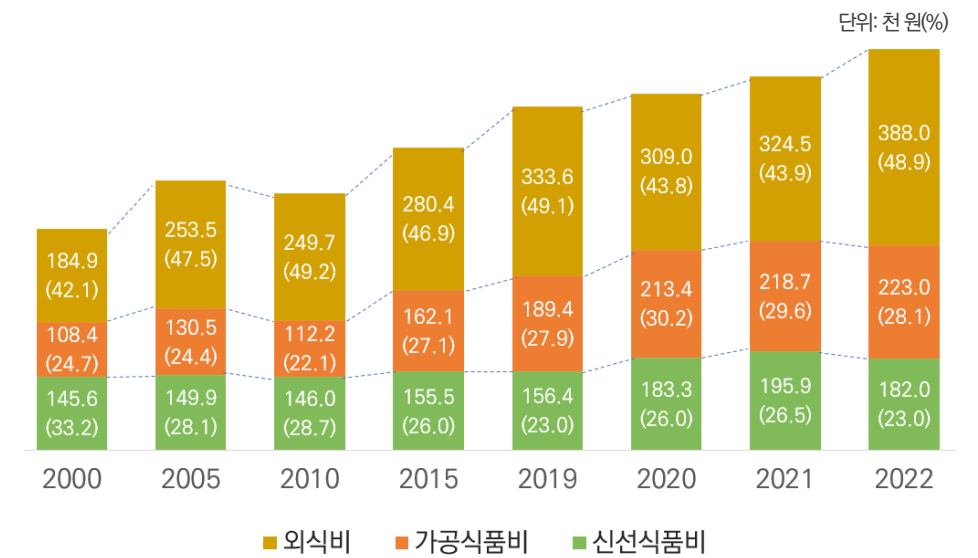
- 한편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코로나 19 이후에도 2020년 3.8%, 2021년에 4.7%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7.3% 큰 폭으로 증가하여 79만 2,790원을 기록함.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실질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2년에 73만 6,042원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되었으나, 증가폭은 2021년 증가율인 2.1%를 유지함.
- 엔겔계수(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식품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는 코로나 19 이후 증가하여 2020년 29.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는 29.6, 2022년도 29.6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가구의 소비지출, 식품비 지출 추이



- 식품비를 신선, 가공, 외식으로 구분하여 지출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가구 식품비의 49.1%를 점하던 외식비 비중은 2020년 43.8%, 2021년 43.9%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48.9%로 2019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됨. 2022년 외식비는 3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한 수준이며,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함.
- 2020년 이후로 증가해왔던 신선식품비는 2022년 가구당 18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7.1% 감소함. 이는 2020년 가구당 지출액인 18만 3천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19 이전보다는 증가한 수준임.
- 가구당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액 비중은 2020년 30.2%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2022년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액은 22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함.
- 즉, 2022년 가구의 식품비는 전년 대비 신선식품 지출액이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과 외식 지출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식품유형별 구성비는 신선식품 23.0%, 가공식품 28.1%, 외식 48.9%로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2. 2022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 변화

- 가공식품 분류별로 2022년에 가장 지출액이 큰 분류는 곡물가공품으로 가구당 월평균 4만 8,202원 지출하여 전년 대비 7.1% 증가함. 곡물가공품은 과거부터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0년대 이후 20%대를 유지해 2022년에는 가공식품 합계 중에서 21.6%를 차지함.
- 2022년 가구당 월평균 당류 및 과자류의 지출액은 2만 8,698원으로 곡물가공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5% 증가하여 예년보다 높은 수준임. 가공식품 지출액 중 당류 및 과자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6%p 소폭 상승하여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식품의 경우에는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9.8% 증가하여, 2022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2만 6,489원으로 전체 가공식품 지출액 중 11.9%를 차지하고 있음.
- 유가공품의 소비지출액은 2010년부터 꾸준히 2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지출액 2만 568원으로 전년 지출액인 2만 1,243원에 비해 3.2% 감소함.

- 조미식품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밥 확대에 힘입어 전체 가공식품 지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7% 대로 증가했으나, 2022년 외식 확대에 의해 지출액이 감소하여 1만 3,314원(6.0%)을 기록하여 코로나 19 이전인 2018년 지출액 수준을 약간 상회함.
- 주류의 경우 꾸준히 소비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가공식품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함. 2022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1만 7,982원으로 2021년에 비해 소폭 상승함.
- 2022년 전년 대비 가공식품 지출액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부류는 조미식품(-15.6%), 곡물가공품(7.1%), 과일가공품(-6.5%), 당류 및 과자류(6.5%) 등으로 나타남. 지출액이 감소한 부류는 수산가공품(-4.1%), 유가공품(-3.2%), 채소가공품(-5.9%), 조미식품이며, 증가한 부류는 곡물가공품, 육가공품(4.5%), 유지류(1.4%), 당류 및 과자류, 기타식품(5.2%), 커피 및 차(1.5%), 주스 및 음료(4.9%), 주류(3.1%)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변화

단위: 원(%)

품목 분류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감율		
									2000-2010	2010-2022	2021-2022
곡물가공	19,837 (18.3)	24,081 (18.5)	30,775 (21.6)	33,136 (20.4)	38,173 (20.2)	43,304 (20.3)	45,005 (20.6)	48,202 (21.6)	4.5%	3.8%	7.1%
육가공	7,330 (6.8)	6,702 (5.1)	7,977 (5.6)	9,634 (5.9)	12,189 (6.4)	14,470 (6.8)	14,871 (6.8)	15,541 (7.0)	0.8%	5.7%	4.5%
수산가공	15,596 (14.4)	17,436 (13.4)	15,234 (10.7)	16,918 (10.4)	16,798 (8.9)	18,891 (8.9)	18,349 (8.4)	17,600 (7.9)	-0.2%	1.2%	-4.1%
유가공	17,661 (16.3)	19,898 (15.2)	20,858 (14.7)	20,369 (12.6)	20,189 (10.7)	21,362 (10.0)	21,243 (9.7)	20,568 (9.2)	1.7%	-0.1%	-3.2%
유지류	2,365 (2.2)	2,265 (1.7)	2,449 (1.7)	2,697 (1.7)	2,579 (1.4)	3,291 (1.5)	3,645 (1.7)	3,696 (1.7)	0.4%	3.5%	1.4%
과일가공	370 (0.3)	731 (0.6)	1,281 (0.9)	2,866 (1.8)	3,321 (1.8)	3,461 (1.6)	3,613 (1.7)	3,378 (1.5)	13.2%	8.4%	-6.5%
채소가공	1,312 (1.2)	1,223 (0.9)	2,097 (1.5)	2,152 (1.3)	2,493 (1.3)	2,968 (1.4)	2,961 (1.4)	2,785 (1.3)	4.8%	2.4%	-5.9%
당류및과자류	12,557 (11.6)	17,398 (13.3)	18,964 (13.3)	23,915 (14.8)	25,168 (13.3)	27,375 (12.8)	26,955 (12.3)	28,698 (12.9)	4.2%	3.5%	6.5%
조미식품	10,148 (9.4)	11,766 (9.0)	10,085 (7.1)	11,170 (6.9)	12,797 (6.8)	15,616 (7.3)	15,772 (7.2)	13,314 (6.0)	-0.1%	2.3%	-15.6%
기타식품	4,969 (4.6)	7,406 (5.7)	8,627 (6.1)	11,059 (6.8)	19,960 (10.5)	23,524 (11.0)	25,183 (11.5)	26,489 (11.9)	5.7%	9.8%	5.2%
커피 및 차	4,015 (3.7)	4,831 (3.7)	6,151 (4.3)	6,659 (4.1)	8,239 (4.4)	9,110 (4.3)	9,414 (4.3)	9,558 (4.3)	4.4%	3.7%	1.5%
주스 및음료	6,946 (6.4)	9,718 (7.4)	9,393 (6.6)	10,717 (6.6)	13,716 (7.2)	14,366 (6.7)	14,279 (6.5)	14,974 (6.7)	3.1%	4.0%	4.9%
주류	5,249 (4.8)	7,039 (5.4)	8,268 (5.8)	10,767 (6.6)	13,779 (7.3)	15,673 (7.3)	17,449 (8.0)	17,982 (8.1)	4.6%	6.7%	3.1%
합계	108,354 (100.0)	130,495 (100.0)	142,159 (100.0)	162,059 (100.0)	189,401 (100.0)	213,411 (100.0)	218,739 (100.0)	222,785 (100.0)	2.8%	3.8%	1.8%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계동향조사의 가공식품 세부 품목 단위로 지출액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품목을 살펴봄. 2022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식빵 및 기타 빵, 한과 및 기타 과자, 기타 육류가공품, 즉석·동결식품 순이며, 식빵 및 기타 빵, 한과 및 기타 과자는 매년 3위 안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 자리잡음.
- 즉석·동결식품은 2020년 이후 3위를 차지하다가 2022년 기타육류가공품 지출액이 증가하며, 4위를 기록함. 기타 육류가공품의 경우 2000년 4위에서 2005년 10위로 하락했다가 2010년 6위, 2015년, 2019년은 각각 4위, 5위를 기록함. 2020년 이후 4위로 다시 상승했다가, 2022년 3위를 차지하며 순위가 높아짐.
- 반찬류는 2000년도 22위, 2005년도 18위, 2010년도 17위, 2015년 15위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19년도 10위권에 기록되어, 그 이후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7위를 기록함.

연도별 지출액 비중 상위 품목 변화

2000		2010		2019		2020		2021		2022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우유	9.2	1 우유	8.4	1 식빵및기타빵	7.8	1 식빵및기타빵	7.4	1 식빵및기타빵	7.7	1 식빵및기타빵	8.5
2 한과및기타과자	6.2	2 식빵및기타빵	7.2	2 한과및기타과자	7.2	2 한과및기타과자	6.8	2 한과및기타과자	6.4	2 한과및기타과자	6.7
3 식빵및기타빵	6.0	3 한과및기타과자	7.2	3 우유	5.2	3 즉석·동결식품	5.0	3 즉석·동결식품	5.0	3 기타육류가공품	5.1
4 기타육류가공품	4.3	4 라면류	3.4	4 즉석·동결식품	4.9	4 기타육류가공품	4.8	4 기타육류가공품	4.9	4 즉석·동결식품	4.9
5 말린 고추	3.7	5 커피	3.3	5 기타육류가공품	4.5	5 우유	4.7	5 우유	4.4	5 우유	4.3
6 김	3.3	6 기타육류가공품	3.3	6 맥주	3.7	6 맥주	3.6	6 맥주	3.8	6 맥주	3.7
7 라면류	3.3	7 아이스크림	3.3	7 기타음료수	3.4	7 라면류	3.3	7 반찬류	3.6	7 반찬류	3.6
8 기타음료수	3.3	8 요구르트	3.2	8 커피	3.3	8 커피	3.3	8 커피	3.3	8 아이스크림	3.3
9 요구르트	3.1	9 기타음료수	3.2	9 라면류	3.2	9 아이스크림	3.1	9 아이스크림	3.2	9 기타음료수	3.3
10 떡	3.0	10 떡	2.9	10 반찬류	3.0	10 기타음료수	3.0	10 기타음료수	2.9	10 커피	3.2
11 커피	2.8	11 과일 및 야채주스	2.7	11 아이스크림	2.9	11 반찬류	3.0	11 라면류	2.9	11 라면류	3.0
12 분유	2.8	12 맥주	2.6	12 요구르트	2.8	12 요구르트	2.8	12 기타곡물가공품	2.7	12 기타곡물가공품	2.9
13 과일 및 야채주스	2.7	13 기타곡물가공품	2.5	13 기타곡물가공품	2.5	13 기타곡물가공품	2.6	13 요구르트	2.7	13 요구르트	2.4
14 아이스크림	2.6	14 말린 고추	2.4	14 과일 및 야채주스	2.3	14 말린 고추	2.5	14 떡	2.3	14 떡	2.3
15 맥주	2.3	15 두부	2.0	15 떡	2.3	15 떡	2.3	15 말린 고추	2.2	15 케이크	2.0
16 햄 및 베이컨	2.0	16 케이크	1.9	16 말린 고추	2.2	16 과일 및 야채주스	2.2	16 소주	2.1	16 소주	2.0
17 기타곡물가공품	1.9	17 반찬류	1.8	17 소주	1.9	17 소주	2.1	17 케이크	2.0	17 과일 및 야채주스	1.8
18 두부	1.6	18 김	1.7	18 케이크	1.8	18 케이크	1.8	18 과일 및 야채주스	1.9	18 생수	1.6
19 젓갈	1.5	19 햄 및 베이컨	1.6	19 과일가공품	1.8	19 과일가공품	1.6	19 과일가공품	1.7	19 김치	1.6
20 참기름및들기름	1.5	20 소주	1.6	20 생수	1.6	20 김치	1.6	20 생수	1.6	20 말린고추	1.5
21 소주	1.5	21 즉석·동결식품	1.5	21 두부	1.4	21 생수	1.5	21 두부	1.5	21 과일가공품	1.5
22 반찬류	1.4	22 채소가공품	1.5	22 김치	1.3	22 두부	1.5	22 김치	1.5	22 두부	1.5
23 마른멸치	1.4	23 마른멸치	1.4	23 채소가공품	1.3	23 채소가공품	1.4	23 채소가공품	1.4	23 기타미분류식품	1.5
24 케이크	1.3	24 김치	1.3	24 김	1.3	24 김	1.3	24 기타조미식품	1.2	24 채소가공품	1.2
25 잼,꿀,조청	1.2	25 분유	1.2	25 햄 및 베이컨	1.2	25 기타조미식품	1.2	25 김	1.1	25 기타조미식품	1.1
26 어묵	1.2	26 수산동물통조림	1.2	26 차	1.0	26 햄 및 베이컨	1.2	26 햄 및 베이컨	1.1	26 김	1.1
27 채소가공품	1.2	27 기타미분류식품	1.2	27 두유	1.0	27 차	1.0	27 차	1.0	27 차	1.1
28 기타조미식품	1.2	28 국수류	1.1	28 사탕 및 젤리	1.0	28 치즈	1.0	28 두유	1.0	28 햄 및 베이컨	1.0
29 마른오징어	1.2	29 두유	1.1	29 기타조미식품	1.0	29 국수류	1.0	29 국수류	1.0	29 국수류	1.0
30 수산동물통조림	1.1	30 어묵	1.1	30 수산동물통조림	0.9	30 기타수산동물가공품	0.9	30 기타수산동물가공품	1.0	30 와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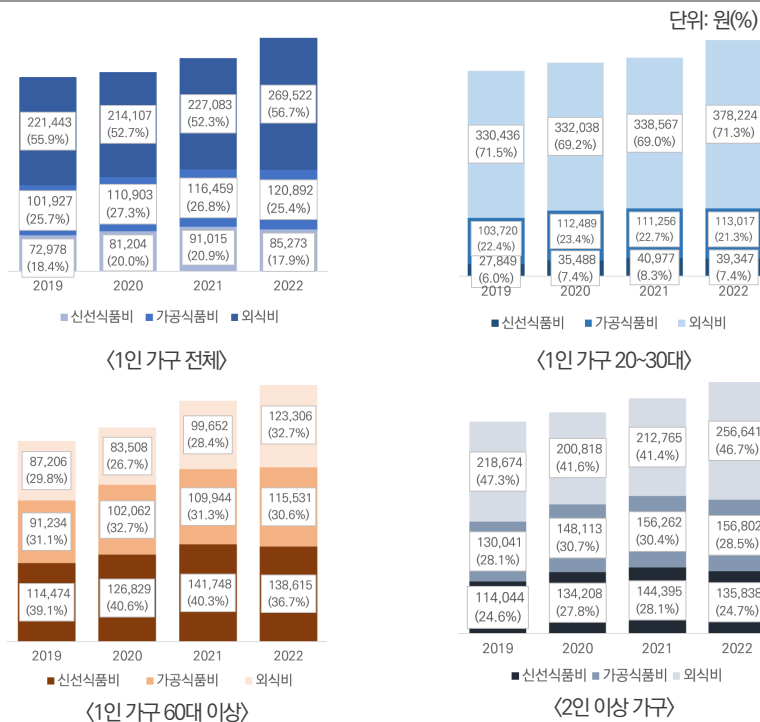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생수는 2000년과 2005년, 2010년 모두 3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2015년 25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과 2021년 각각 20위와 21위, 2022년에는 18위로 상승함.
- 김치는 2000년도에는 30위 내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5년과 2010년에 각각 26위와 24위를 기록하였고, 2020년 21위, 2021년 20위, 2022년에는 19위로 순위가 상승함.
- 말린 고추는 2000년도 5위, 2005년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요한 품목이었으나 2010년 14위, 2015년에는 17위까지 하락함. 2020년 14위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15위, 2022년에는 20위로 다시 하락함.
- 햄 및 베이컨은 2000년 16위에서 2005년 20위, 2010년과 2015년 21위로 지속해 하락하였으며, 2020년, 2021년 26위를 유지했으나 2022년 28위로 하락함.

3. 가구원 수별 가공식품 지출액 변화

-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2022년 신선식품 지출액은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 외식 지출액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외식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식품 유형별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가공식품과 신선식품비 비중은 감소한 특징을 보임.
 - ▶ 신선 식품비 비중은 1인 가구 3.0%p, 2인 이상 가구는 3.4%p 하락
 - ▶ 가공 식품비 비중은 1인 가구 1.4%p, 2인 이상 가구 1.9%p 하락
 - ▶ 외식비 비중은 1인 가구 4.4%p, 2인 이상 가구 5.3%p 증가
-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식료품비 지출 구성에 큰 차이를 나타냄. 20~30대 1인 가구는 외식비 비중이 2020년 69.2%, 2021년 69.0%에서 2022년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71.3%로 70%를 넘는 수준임. 금액 기준으로는 26만 9,522원으로 2019년보다 21.7% 증가함.
-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지출 비중이 2021년에 각각 40.3%, 31.3%로 외식비 비중(28.4%)보다 높았으나, 2022년 외식비 지출 증가로 인해 신선 식품비 비중(36.7%)이 3.6%p 감소하고, 외식비는 12만 3,306원으로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4.3%p 증가함.

가구원 수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주: 1)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2)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분류별로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곡물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1.7%, 21.6%로 가장 높았고, 유지류와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비중은 공통적으로 모두 1.5% 내외의 낮은 비중을 차지함.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기타식품(12.5%), 커피 및 차(4.9%), 주스 및 음료(8.2%), 주류(11.9%)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육가공품(7.3%), 수산가공품(8.3%), 유가공품(9.5%), 당류 및 과자류(12.9%)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
- 20~30대 1인 가구는 곡물가공품(24.8%), 당류 및 과자류(14.5%), 기타식품(12.9%), 주스 및 음료(11.2%), 주류(14.7%)가 높은 비중을 점함.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조미식품(12.3%), 수산가공품(12.3%), 유가공품(11.0%)이 월등히 높은 반면, 곡물가공품(18.5%)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출액 비중이 낮음.

가구원 수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

단위: %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20~30대	1인 가구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
곡물가공품	21.7	24.8	18.5	21.6
육가공품	4.8	4.7	4.2	7.3
수산가공품	7.2	3.0	12.3	8.3
유가공품	7.6	5.3	11.0	9.5
유지류	1.5	0.7	2.8	1.7
과일가공품	1.4	0.8	2.0	1.6
채소가공품	1.0	0.3	2.0	1.3
당류 및 과자류	11.3	14.5	8.3	12.9
조미식품	5.9	2.1	12.3	6.3
기타식품	12.5	12.9	11.2	11.6
커피 및 차	4.9	5.0	4.0	4.2
주스 및 음료	8.2	11.2	5.1	6.4
주류	11.9	14.7	6.3	7.3

주: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세부 품목단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식빵 및 기타빵과 한과 및 기타과자의 비중이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남. 3순위 품목은 1인 가구의 경우 즉석·동결식품이, 2인 이상 가구는 기타육류가공품이 차지함.
- 1인 가구는 맥주와 커피의 순위가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한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맥주는 순위권 밖에 있으며, 커피 지출액은 10위를 차지함. 2인 이상 가구에서 우유 지출액은 5위인데 반해 1인 가구에서는 11위를 차지하여 다소 낮은 순위를 보이거나, 1인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0대인 경우에는 2위로 우유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1인 가구는 기타음료수가 6위, 소주와 생수의 순위가 각각 13, 14위, 와인 17위, 양주 24위로 2인 이상 가구의 9위(기타음료수), 16위(소주)위에 비해 높게 나타남.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생수, 와인, 양주 모두 30위권 밖으로 나타나, 1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류와 주스 및 음료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30대의 1인 가구는 식빵 및 기타빵, 한과기타과자, 즉석동결식품이 1~3위를 점하고 있으며, 집에서 간단히 식사할 목적으로 라면(8위), 기타미분류식품(22위) 등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홈카페, 홈술문화(집에서 카페나 술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타 연령대나 2인 이상 가구 그룹에 비해 맥주(4위), 기타음료수(5위), 커피(9위), 와인(13위), 양주(16위), 소주(17위) 등의 지출이 큰 특징이 있음. 이에 반해 60대의 1인가구의 경우 우유(2위), 요구르트(7위) 등 유가공품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간단히 식사를 대체할만한 떡(8위), 국수류(30위)의 지출 또한 큼. 60대 가구는 김장을 하거나, 장류를 직접 담그는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어 말린고추(3위), 참깨들깨(15위) 지출 비중도 높은 것이 특징임.

가구원수별 지출액 비중 상위 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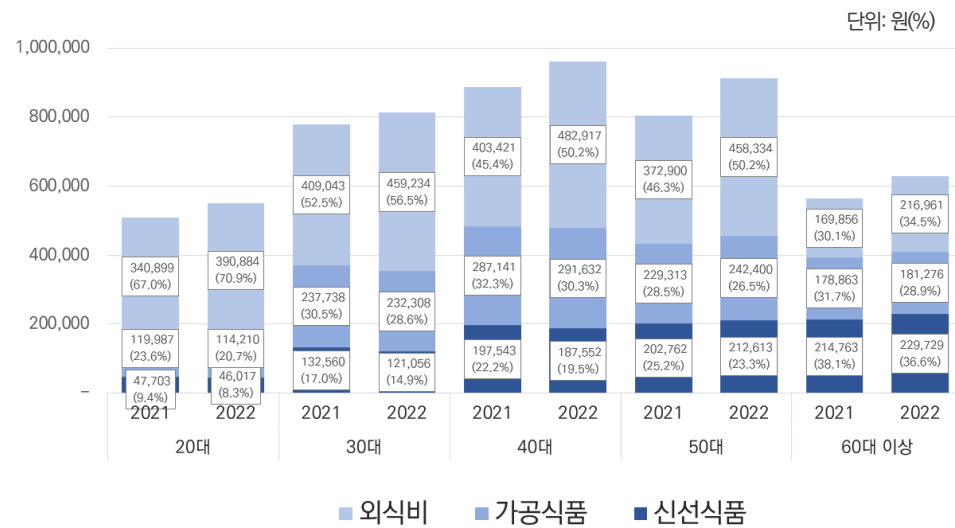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20~30대		1인 가구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1 식빵및기타빵	8.3	식빵및기타빵	10.9	식빵및기타빵	5.3	식빵및기타빵	8.5
2 한과기타과자	6.1	한과기타과자	8.1	우유	4.9	한과기타과자	6.7
3 즉석동결식품	5.5	즉석동결식품	7.7	말린고추	4.8	기타육류	5.4
4 맥주	4.9	맥주	6.8	반찬류	4.5	즉석동결식품	4.6
5 커피	3.9	기타음료수	5.9	한과기타과자	3.8	우유	4.4
6 기타음료수	3.8	아이스크림	4.5	기타육류	3.5	반찬류	3.7
7 반찬류	3.7	기타곡물	4.4	요구르트	3.4	맥주	3.4
8 기타곡물	3.6	라면	3.9	떡	3.4	아이스크림	3.3
9 기타육류	3.5	커피	3.8	커피	3.1	기타음료수	3.1
10 라면	3.5	생수	3.6	기타곡물	3.1	커피	3.1
11 우유	3.5	케이크	3.5	즉석동결식품	3.0	라면	2.9
12 아이스크림	2.9	기타육류	3.2	김치	2.7	기타곡물	2.7
13 소주	2.7	와인	2.7	소주	2.7	요구르트	2.5
14 생수	2.7	반찬류	2.7	라면	2.4	떡	2.4
15 요구르트	2.2	우유	2.5	참깨들깨	2.4	케이크	2.0
16 김치	2.2	양주	2.5	두부	2.3	소주	1.9
17 와인	2.1	소주	1.9	맥주	2.0	과일야채주스	1.8
18 떡	2.0	과일야채주스	1.8	과일가공	2.0	말린고추	1.7
19 케이크	1.9	요구르트	1.5	채소가공	2.0	두부	1.6
20 말린고추	1.7	김치	1.4	두유	1.9	과일가공	1.6
21 과일야채주스	1.6	차	1.2	기타음료수	1.9	김치	1.5
22 과일가공	1.4	기타미분류식품	0.9	생수	1.8	생수	1.4
23 두부	1.3	떡	0.8	젓갈	1.8	채소가공	1.3
24 두유	1.2	기타조미식품	0.8	참기름들기름	1.7	기타조미식품	1.2
25 양주	1.2	초콜릿	0.8	아이스크림	1.6	김	1.1
26 차	1.1	햄베이컨	0.8	과일야채주스	1.4	기타미분류식품	1.1
27 채소가공	1.0	과일가공	0.8	참깨들깨	1.4	국수류	1.1
28 김	0.9	소시지	0.8	김	1.4	햄베이컨	1.1
29 국수류	0.8	사탕젤리	0.7	마른멸치	1.3	차	1.1
30 참깨들깨	0.8	국수류	0.6	국수류	1.0	사탕젤리	1.0

주: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4. 가구주 연령대별 가공식품 지출액 변화

-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식품비 지출이 가장 많고, 50대, 30대 가구의 순서임. 2022년 가구주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서 외식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지출 비중은 감소함. 특히 40대 가구에서 외식 지출 비중이 4.8%p로 가장 크게 증가함.
- 2021년 대비 2022년 신선식품비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 또한 40대 가구이며, 2021년 22.2%에서 19.5%로 2.7%p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9,991원 가량 감소함. 금액 기준으로는 30대 가구에서 1만 1,504원이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함.
- 가공식품비의 경우, 20대와 60대 가구에서 지출비중이 각각 2.9%p 감소함. 60대 가구에서는 오히려 가공식품비 지출이 2,413원 증가하였으나, 외식비와 신선식품비 지출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서 가공식품비 지출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신선식품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가구주 60대 이상 가구로 2022년 지출 비중이 36.6%에 달하며, 이는 가구주 20대 가구 지출 비중인 8.3%의 4배 이상 수준임.
- 20대 가구는 2022년 외식 지출 비중이 70.9%로 가장 크며, 30대 56.5%, 40~50대 50.2%, 60대 이상 34.5%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식 지출 비중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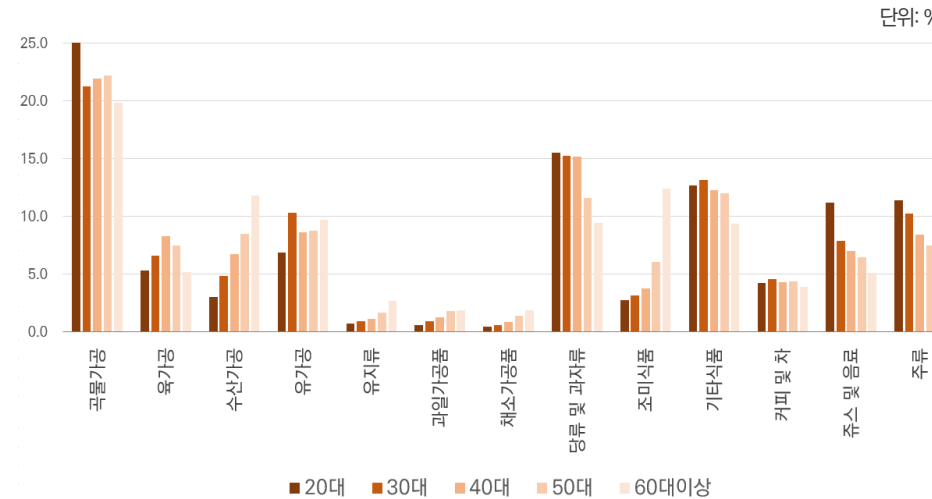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대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분류별로 지출액 비중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곡물가공품의 비중이 가장 높음. 특히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가구는 25.0%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가구는 19.9%로 나타남.
-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산가공품과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지류, 조미식품의 비중도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 집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됨. 특히, 60대 이상 가구의 조미식품 비중은 12.5%로 20대 가구 2.8%에 비해 크게 높은 편임.
- 반면, 당류 및 과자류와 기타식품, 주스 및 음료, 주류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조를 이룸. 커피 및 차류는 전 연령대에서 약 4%대로 비슷한 지출액 비중을 보임.
- 육가공품의 경우에는 가구주 연령 40대까지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중이 함께 증가하지만 50대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가공품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감소하다 60대 이상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가구주 연령대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 비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로는 가구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식빵 및 기타빵의 비중 순위가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60대 가구를 제외한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한과 및 기타과자 지출비중이 2위를 기록한 반면,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말린고추로 나타남. 말린 고추는 50~60대에서만 30위권 내에 존재하며 (50대의 경우 22위),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30위권 내에 존재하지 않음.

- 즉석·동결식품은 20~30대 이하 가구에서 3위, 40~50대 가구에서 4위로 상위권에 존재하나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8위로 낮아짐. 맥주 또한 20대, 30대 가구에서 각각 5위, 4위, 6위를 차지하지만, 50대에서는 9위, 60대에서는 16위를 차지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위는 낮아지는 특징이 있음. 기타 음료수, 생수 등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
- 우유의 경우 20대 가구에서 12위, 30대 6위, 40~50대 5위,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4위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은 순위를 점함.

가구주 연령대별 지출액 비중 상위 품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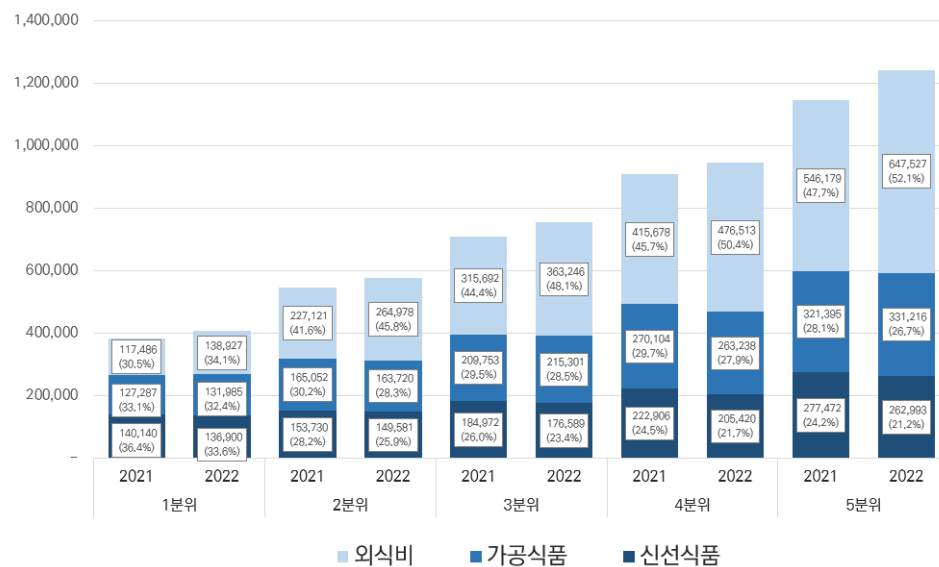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식빵및기타빵	11.0	식빵및기타빵	9.4	식빵및기타빵	9.3	식빵및기타빵	8.6	식빵및기타빵	6.4
한과기타과자	8.2	한과기타과자	8.2	한과기타과자	8.1	한과기타과자	6.2	말린고추	5.2
즉석동결식품	7.1	즉석동결식품	5.4	기타음료수	5.9	기타음료수	5.5	한과기타과자	4.5
기타음료수	5.9	맥주	3.9	즉석동결식품	5.4	즉석동결식품	4.9	우유	4.5
맥주	5.8	기타음료수	5.2	우유	4.4	우유	4.2	기타음료수	4.2
아이스크림	5.3	우유	4.1	맥주	4.3	반찬류	3.8	떡	3.5
라면	4.1	아이스크림	2.7	아이스크림	4.0	커피	3.4	반찬류	3.3
기타곡물	3.9	기타음료수	2.8	반찬류	3.6	라면	3.4	즉석동결식품	3.3
기타음료수	3.8	반찬류	4.8	기타음료수	3.6	맥주	3.3	커피	3.0
케이크	3.7	커피	2.9	라면	3.4	기타음료수	3.1	요구르트	2.9
생수	3.4	케이크	1.7	커피	3.2	아이스크림	3.0	기타곡물	2.8
우유	3.0	기타곡물	4.1	기타곡물	2.7	기타곡물	2.8	소주	2.5
커피	3.0	라면	3.5	케이크	2.4	요구르트	2.5	라면	2.4
반찬류	2.5	분유	3.7	요구르트	2.1	소주	2.4	기타음료수	2.3
와인	1.9	과일야채주스	1.4	과일야채주스	2.0	떡	2.3	두부	2.2
과일야채주스	1.9	요구르트	2.3	떡	1.8	김치	1.9	맥주	2.2
요구르트	1.8	소주	2.1	소주	1.7	케이크	1.9	아이스크림	2.1
양주	1.7	생수	1.4	와인	1.5	과일야채주스	1.8	참깨들깨	2.0
김치	1.3	이유식	1.2	사탕젤리	1.4	과일야채주스	1.7	과일야채주스	1.9
소주	1.3	떡	1.8	생수	1.4	두부	1.7	채소가공	1.9
차	1.3	사탕젤리	1.1	김치	1.4	생수	1.6	김치	1.7
기타미분류식품	1.1	와인	1.2	햄베이컨	1.4	말린고추	1.5	젓갈	1.7
기타조미식품	0.9	양주	1.1	기타미분류식품	1.4	채소가공	1.4	생수	1.5
사탕젤리	0.9	김치	1.4	과일야채주스	1.3	기타조미식품	1.2	참기름들기름	1.5
분유	0.9	기타미분류식품	2.5	기타조미식품	1.2	햄베이컨	1.2	두유	1.5
떡	0.9	차	1.4	두부	1.2	김	1.2	김	1.4
햄베이컨	0.9	기타조미식품	0.9	차	1.1	두유	1.1	과일야채주스	1.3
초콜릿	0.7	치즈	0.8	소시지	1.1	국수류	1.1	잼꿀조청	1.2
국수류	0.7	과일야채주스	0.8	치즈	1.1	기타수산물	1.1	마른멸치	1.2
두부	0.7	소시지	0.9	어묵	1.1	어묵	1.1	국수류	1.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5.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지출액 변화

-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식품 지출액이 크게 늘며, 외식비 비중이 확대됨. 2022년에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외식비 비중이 증가하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비 지출 비중이 감소한 특징이 있음.
- 소득분위가 4분위인 가구에서 2022년 외식비 비중은 50.4%로 전년 대비 4.7%p 증가하며 다른 소득분위 가구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1분위 가구의 외식비 비중은 전년 대비 3.5%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함.
- 모든 소득분위에서 2022년 신선식품비 비중은 3%p 내외로 감소하였으며, 지출액 기준에서도 모두 감소함. 특히 소득 4분위 가구의 신선식품비는 전년 대비 1만 7,486원 감소하여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출 비중으로 살펴보면 소득 5분위 가구에서 2021년 24.2%에서 2022년 21.2%로 3.1%p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함.
- 가공식품비 비중의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서 2%p 내로 감소해 신선식품비 비중에 비해 덜 감소함. 소득분위 2분위 가구와 4분위 가구에서 각각 1.9%p 감소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 소득 4분위 가구가 6,866원 감소해 가장 크게 감소함.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가공식품비 비중이 1.4%p 감소한 반면, 지출액을 기준으로 9,821원 증가함.

소득분위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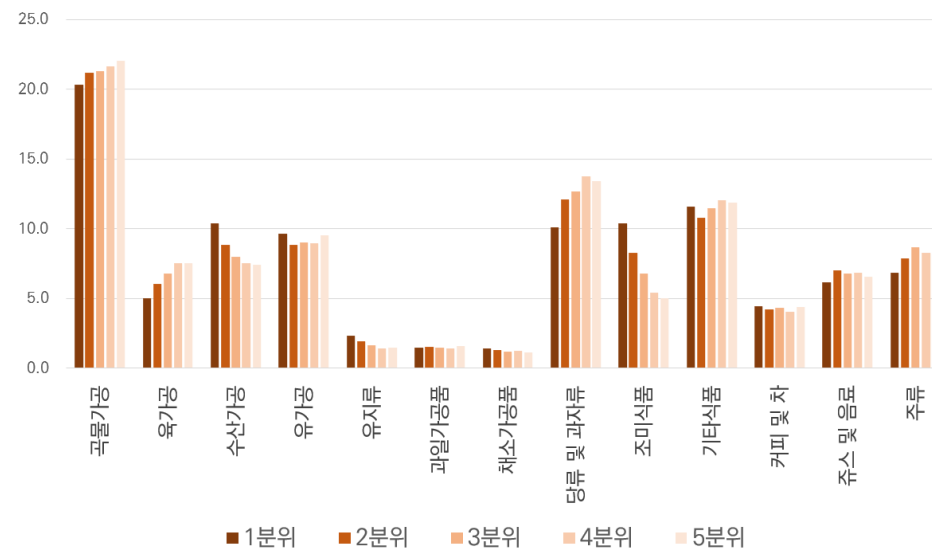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분류별로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분위별 가구에서 곡물가공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곡물가공품, 육가공품, 기타식품의 지출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육가공품은 소득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지출 비중은 5.0%인데 반해, 소득 5분위 가구의 비중은 7.5%로 소득 분위에 따른 격차가 큼.
- 수산가공품, 유지류, 조미식품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지출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조미식품은 5분위 가구의 지출 비중은 5.0%인데 반해 1분위 가구의 지출 비중 10.4%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
- 기타식품의 경우 2021년에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2022년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11~12% 수준임.
-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음료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서 지출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 비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로는 모든 소득분위별 가구에서 식빵 및 기타빵의 비중 순위가 1순위, 한과 및 기타과자 2순위로 나타남. 소득 1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서 기타육류가공품이 3~4순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포함됨.
- 2021년에 소득 1분위 가구에서 말린 고추가 4순위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지출이 감소하여 6순위로 순위가 낮아짐. 말린 고추는 소득 2분위 가구에서 13위, 3분위 가구 16위, 4분위 22위, 5분위 27위를 차지해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지출액 비중 순위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음. 이는 말린 고추가 김장에 주로 쓰인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집에서 직접 김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 비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식빵및기타빵	6.4	식빵및기타빵	7.8	식빵및기타빵	8.2	식빵및기타빵	8.8	식빵및기타빵	9.5
한과기타과자	5.1	한과기타과자	6.4	한과기타과자	6.7	한과기타과자	7.2	한과기타과자	7.0
우유	4.5	즉석동결식품	4.6	기타육류	5.0	기타육류	5.5	기타육류	5.5
반찬류	4.3	기타육류	4.5	즉석동결식품	5.0	즉석동결식품	4.9	즉석동결식품	4.9
즉석동결식품	4.1	우유	4.0	우유	4.0	우유	4.2	우유	4.5
말린고추	3.9	맥주	3.5	맥주	3.9	맥주	4.0	맥주	3.8
기타육류	3.8	기타음료수	3.4	기타음료수	3.3	아이스크림	3.7	반찬류	3.7
커피	3.4	라면	3.2	커피	3.3	반찬류	3.6	아이스크림	3.5
라면	3.3	커피	3.2	아이스크림	3.2	기타음료수	3.4	커피	3.3
기타곡물	3.1	반찬류	3.2	라면	3.1	라면	3.2	기타음료수	3.1
기타음료수	2.9	기타곡물	3.1	반찬류	3.1	커피	3.0	기타곡물	2.7
요구르트	2.8	아이스크림	2.9	기타곡물	2.8	기타곡물	2.7	라면	2.6
떡	2.8	말린고추	2.9	떡	2.4	요구르트	2.2	요구르트	2.4
맥주	2.6	요구르트	2.6	소주	2.3	케이크	2.2	케이크	2.4
소주	2.6	소주	2.5	요구르트	2.3	떡	2.1	떡	2.3
아이스크림	2.3	떡	2.3	말린고추	2.0	소주	2.0	과일야채주스	2.1
두부	2.1	생수	2.0	케이크	1.9	과일야채주스	1.8	과일가공	1.6
김치	2.1	김치	1.8	과일야채주스	1.8	김치	1.6	소주	1.5
생수	1.9	케이크	1.7	생수	1.7	생수	1.5	와인	1.5
참깨들깨	1.6	두부	1.7	두부	1.5	과일가공	1.4	두부	1.4
두유	1.6	과일야채주스	1.6	과일가공	1.4	두부	1.4	김치	1.4
과일가공	1.5	과일가공	1.5	김치	1.3	말린고추	1.3	생수	1.3
채소가공	1.4	채소가공	1.3	채소가공	1.2	채소가공	1.2	기타미분류식품	1.3
젓갈	1.4	두유	1.1	기타조미식품	1.2	기타조미식품	1.2	기타조미식품	1.2
참기름들기름	1.3	김	1.1	국수류	1.1	기타미분류식품	1.1	햄베이컨	1.2
김	1.3	참깨들깨	1.1	김	1.1	사탕젤리	1.1	채소가공	1.1
과일야채주스	1.3	기타조미식품	1.0	차	1.0	햄베이컨	1.1	차	1.1
국수류	1.2	차	1.0	기타미분류식품	1.0	차	1.0	말린고추	1.1
마른멸치	1.0	참기름들기름	1.0	어묵	1.0	국수류	1.0	사탕젤리	1.1
차	1.0	잼꿀조청	1.0	사탕젤리	1.0	김	1.0	치즈	1.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6. 2022년 가공식품 소비의 특징

- 2022년 식품소비는 코로나 19 기간인 2020~2021년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고,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일부 상회한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식품 물가 증가를 고려한 실질 식품 소비 증가추세는 2020년 3.3%, 2021년 2.1%, 2022년 2.1% 수준으로, 해당 시기 물가 상승이 커 식품 소비의 증가는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식품 유형별로는 외식 지출이 증가하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지출이 감소한 특징을 보임. 특히 외식 지출의 경우 상당히 증가폭이 커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의 지출 수준을 상회함.
- 2022년 곡물가공품, 육가공품, 유지류, 당류 및 과자류, 기타식품, 주스 및 음료, 주류의 증가세가 확인되었으며 전년대비 곡물가공품과 당류 및 과자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코로나 19 기간 집밥 증가 경향에 따라 지출이 증가했던 조미식품의 경우, 전년 대비 15.6% 감소하였으며, 외식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즉석·동결식품 등의 급격한 증가추세도 다수 둔화됨. 한편 2022년 가정식이 외식으로 대체됨에도 불구하고 반찬류 지출이 유지되는 것은 코로나 19 동안 자리잡은 '간편하면서도 건강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려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음료,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1인 가구 중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행태에 큰 차이를 보임. 20~30대 1인 가구의 경우 곡물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의 비중이 높은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조미식품, 수산가공 및 육가공품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가공식품 지출이 가장 많은 계층은 가구주 연령대가 40대인 가구로, 육가공품 지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산가공품,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조미식품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당류 및 과자류와 주스 및 음료, 주류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즉석·동결식품이 포함된 기타식품의 경우 2022년에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 가구를 제외하면 연령대별 지출 차이가 크지 않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대까지 소비가 일반화된 특징을 보임. 한편 주스 및 음료, 주류의 경우 20~30대 젊은 세대에서의 소비가 많은 편임.
- 소득분위별로는 모든 소득분위 가구에서 기타식품의 지출비중이 높아 간편화, 고급화 트렌드의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측됨.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곡물가공품, 육가공품의 지출 비중이 상승하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품목은 수산가공품과 채소가공품, 조미식품임.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krei/index.do>

저자정보

- ▶ 이계임 선임연구위원(061-820-2326), lkilki@krei.re.kr
- ▶ 정소영 연구원(061-820-2242), jsy1858@krei.re.kr